

2007 KEPIC-Week 행사 성료



대한전기협회(회장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는 8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국내·외 전력산업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산업기술기준 관련 논문발표 및 워크샵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7 KEPIC-Week” 행사를 개최했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력산업의 미래, KEPIC과 함께”라는 주제로 미국기계학회(ASME), 일본 동경전력(주),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미국 에너지성,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또한 원자력 기계 등 7개 전문분야에서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원자력 국제표준화 워크샵, 원전기기 환경피로 워크샵 등 비중있는 워크샵을 병행하여 개최했으며, 유공자 포상, 전력산업전시회, 전력인의 만남, 산업 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 활성화와 국제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력인의 화합과 협력을 통한 전력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주최로 ‘2007 원자력 국제표준화 워크샵’도 함께 개최되는 등 전력산업계 행사로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치러졌다.

이밖에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등 국내 전력산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마련한 산업전시회도 열려 최신 기술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하는 등 풍성한 정보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KEPIC 인증업체 세미나에서는 KEPIC 2007년 추록 제도 개선사항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기술품질, 전기/계측, 원자력, 원자력기계, 발

전기계, 화재 환경, 구조 등 7개 기술분야 발표세션과 원자력국제표준화 워크숍 및 원전기기 환경피로 워크숍 등에서 총 100여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돼 새로운 기술과 동향을 파악하는 장이 됐다.

합동행사에서는 고정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이 영어로 진행한 특별강연과 이원걸 대한전기협회 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대신해 문호 부사장이 '에너지산업 환경 변화와 전력산업 글로벌화 전략' 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어 기념식에서 이원걸 회장을 대신해 문호 한전 부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전력기술 자립계획의 일환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KEPIC은 이제 우리 전력산업 기술 인프라의 한 축으로 뿌리를 내려 전력산업의 충실한 동반자로서 전력설비 기자재를 해외에 수출할 때 훌륭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하고 있다"면서 "세계 전력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표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력기술과 전문인력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격려사에서 "KEPIC은 정부 고시에 힘입어 신뢰성과 적용성이 인정돼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 자립기반 구축과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설비 안전성에 현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 표준화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전력산업 표준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가 만든 KEPIC이 세계 전력산업의 표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표준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축사에서 "경주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방폐장 등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해 역사문화와 첨단과학이 어우러진 신라 천년 이후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전력산업의 주요 인프라인 기술표준을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전기문화 창달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력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에게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했고, KEPIC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단체부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개인부문에서 한국남부발전(주) 이한규 본부장과 두산중공업(주) 김상진 상무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자

- 정영익 한국수력원자력(주) 실장
- 김상직 동아건설산업(주) 부부장
- 주대현 현대중공업(주) 부장
- 심은보 한국전력공사 과장
- 김귀태 한국서부발전(주) 부장
- 이석구 한국동서발전(주) 부장
- 윤장현 한국남동발전(주) 과장
- 송상용 대림산업(주) 부장
- 박건수 두산중공업(주) 부장
- 양동순 한전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진수 삼창기업(주) 이사
- 차인호 한국중부발전(주) 부장
- 안효용 한국남부발전(주) 과장

전기산업전시회 참여업체

- 한국수력원자력(주), 두산중공업(주), (주)BMT, 진영이엠테크(주), 한국지노(주), (사)한국도장기술인협회, (주)프론틱스, 용성전기(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카이텍, (주)비츠로테크, LS전선(주), (주)태성에스엔이, 광명전기(주), 이지테크, PTC

‘IEC 규격도입에 따른 전압구분 연구’ 공청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9월 6일 서울 중구 명동소재 “동보성”에서 전기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EC 규격도입에 따른 전압구분 연구”공청회를 열어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WTO/TBT 협정에 따라 IEC 표준을 도입중이나 저압과 고압의 구분에 있어 IEC에서는 1,000V까지를 저압으로 규정하고, 우리 전기사업법상에서는 600V까지를 저압으로 규정하고 있어, IEC규격과 현행 국내기준과 달라 이를 국제표준과 부합화하기 위한 조사연구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압구분 변경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영향과 고압의 전압구분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전압구분체계의 합리적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였다.